

2011. 8. 1 제268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8. 1 제268호

문화·디자인

1. 벽화, 그래피티 등 거리예술 보호 (영국 브리스틀市)
(토막기사) 수변공간의 활력을 위해 오우기바시 갑문을 시민에게 개방
(도쿄)

산업·경제

2. '50세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계약' 프로그램 시행 (독일)

방재·안전

3. 화재 위험에 취약한 노인 관련 시설의 소방설비 점검 (런던)

도시환경

4. 매립지 등 오염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코끼리풀'을 활용해 생물연료 생산
(영국 노팅엄셔州)
(토막기사) 꽃가루가 적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숲' 사업 시행 (도쿄)
(토막기사) 전기자동차를 2013년까지 5000대 보급 (일본 교토府)

도시교통

5. 여성 자전거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추진 (뉴욕)
6.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평생 버스이용권 무료 제공 (스페인 무르시아市)
7.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인정제도 운영 (일본)

도시계획·주택

8. 지속가능한 공원계획안 발표 (뉴욕)
-

문 화 · 디 자 인

1. 벽화, 그라피티 등 거리예술 보호 (영국 브리스틀市)

○ 영국 브리스틀市는 벽화 미술가 뱅크시(Banksy)의 초기 작품이 낙서로 오해받아 훼손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거리 벽화 등 거리의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기로 함.

- 브리스틀은 청년문화의 중심지로서, 지금은 유명한 거리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뱅크시(Banksy)의 무명 시절 작품이 다수 있음. 그런데 거리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낙서로 오해받아 작품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뱅크시의 작품 ‘분홍빛 마스크를 쓴 고릴라’의 훼손 이전 모습】

- 이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은 거리 벽화가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지역사회 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s)이 나서서 市 전역에 분포된 예술작품을 파악해 등록하고, 등록된 예술작품이 있는 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 허가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市는 작품 등록 및 관리계획안을 심의 해 2011년 말까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市는 거리 벽화 등 대중예술작품에 대한 도시정책 전략인 ‘브리스틀 대중 예술 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 이 전략을 통해 그동안 낙서로 취급되었던 벽화, 그래피티 등을 도시계획 및 개발 절차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시 및 건물 디자인을 보완·보조하는 대중적인 예술 형태로 인정함. 이로써 새로운 개발이나 기존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개보수 및 구조 변경을 시행할 때 더 창조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됨.
- 이 전략에 따르면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에서 대중예술작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 예술가, 계획가, 건축가는 물론이고 청소 등 관련 서비스 관계자, 미술 전시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이 대상이 됨. 또한 공공시설에 설치된 거리 예술을 보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해야 할 일과 대중예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포함됨.

(www.bbc.co.uk/news/uk-england-bristol-14201021)

(www.publicartonline.org.uk/resources/practicaladvice/policiesguidance/strategies/bristol.php)

수변공간의 활력을 위해 오우기바시 갑문을 시민에게 개방 (도쿄)

- 도쿄에 있는 오우기바시 갑문(閘門)은 고토區 델타 지역을 가로지르는 오나기江의 중앙에 위치하며, 수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하천을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미니 파나마 운하’라고 불림. 2개 수문 사이의

공간인 갑실(閤室)에 배를 넣어 수위를 인공적으로 상승시켜 배를 통과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여름철과 같이 수변공간의 인기가 높은 계절에는 유람선 등 선박의 왕래가 잦음.

- 2011년에도 수변공간의 활력 증진을 위해 여름방학에 맞추어 이 갑문을 일반에 개방함. 배에서 내려 갑문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선착장도 함께 개방함.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한 달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입장료는 없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7/2017k500.htm)

(www.kensetsu.metro.tokyo.jp/chisui/jigyousuimon/sisetu/ougibashi.html)

산 업 · 경 제

2. ‘50세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계약’ 프로그램 시행 (독일)

-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이 프로그램은 만 50세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직업전선과 노동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지역의 경제력, 잠재력,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고령자는 서비스업과 여러 연령대가 협력해 일하는 부문에서 숙련된 직업경험이나 다양한 인생경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분석하는 능력이 우수함. 이러한 장점 때문에 기업주들도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장기 고용계약을 맺는 모습】

- 이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진행됨. 우선 1단계(2011~2015년)에서는 장기실업자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2011년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 약 6만 5000명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연방정부는 독일 내 78개 지역에 고용계약 추진단을 구성해 만 50세 이상 장기실업자가 다시 직업을 가지도록 유도할 계획임. 시작 단계에서부터 421개 직업센터와 기본생활보장 부서의 95%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참여단체는 상호간에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됨.
 - 지역 네트워크 파트너도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주요 파트너는 기업, 협회, 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치기관, 노동조합, 교회, 사회단체 등임.
- 이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의 장기실업자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게 됨.



【구직자가 직업센터에서 상담 받는 모습】

(www.perspektive50plus.de)

방 재 · 안 전

3. 화재 위험에 취약한 노인 관련 시설의 소방설비 점검 (런던)

○ 런던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노년층 관련 시설을 점검해 노인요양시설 29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소방설비 관리와 정비에 주력함. 노인요양시설 등은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일반 건물보다 피해가 커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함.

-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대피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

우, 비상구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안전계획, 대치요령 숙지를 위한 훈련, 관련 소방시설 점검의 3가지 항목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특히 소화기나 경보기와 같은 소방시설뿐 아니라 신속하게 노인을 대피시키는 훈련과 계획을 매우 중요한 방재 대책으로 보고 있음.

- 방재시설의 경우 설치한 뒤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 점검과 보수가 필요함. 시설과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화재 안전계획도 중요함.
- 화재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3개 요인별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향후에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를 분석, 공유함. 최근 있었던 노인시설 화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 안전계획이 중요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상황별로 대피요령을 마련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런던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총 1976개소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소방청의 점검을 받은 곳은 663개소임. 이 중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는 4%에 이름. 소방청은 이와 같은 점검결과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점검대상을 곧 전체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10년 한 해 동안 런던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62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사망자가 3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市는, 정기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이 주로 사는 민간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공공시설과 마찬가지로 소방점

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정책안을 현재 검토 중임.

(www.bbc.co.uk/news/uk-england-london-14190378)

(www.london-fire.gov.uk/news/LatestNewsReleases_PR1547.asp)

도 시 환 경

4. 매립지 등 오염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코끼리풀’을 활용해 생물연료 생산 (영국 노팅엄셔주)

- 영국 노팅엄셔주는 ‘코끼리풀’을 재배해 생물연료(Biofuel)의 원료로 활용함. 코끼리풀 재배를 통한 수익도 연간 4000파운드(약 69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대안 에너지원인 생물연료를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코끼리풀은 최대 3m까지 자람. 지방정부가 직접 생물연료의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영국 내에서 처음임.
- 코끼리풀을 이용해 만든 생물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코끼리풀은 재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함. 주당국은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코끼리풀을 공급할 예정임. 피스커턴 지역에서 시행될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식용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척박한 토양을 중심으로 재배지를 늘려나갈 계획임.
- 코끼리풀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열대 및 아열대지역이 원산지로서, 뿌리가 깊게 자리 잡지 않아 매립지 등 오염된 토양층에서도

재배할 수 있음. 또한 빨리 자라는 습성 때문에 생물연료의 원료 작물 중 단위면적당 에너지 발생도가 가장 높아 비용 대비 효율도 높음.

- 따라서 매립지, 척박한 토양이라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를 대상으로 코끼리풀과 같이 재생연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함. 시범사업지구에서 코끼리풀의 연간 재배량은 100톤으로 예상되는데, ㎏당국은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인근 매립지의 오염 제어와 환경 관리에 투입할 예정임.



【생물연료의 원료로 쓰이는 코끼리풀】

(www.bbc.co.uk/news/uk-england-nottinghamshire-14167266)

꽃가루가 적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숲’ 사업 시행 (도쿄)

- 도쿄都와 都 농림수산진흥재단은 ‘꽃가루가 적은 숲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업 및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삼림을 정비하는 ‘기업의 숲’ 사업을 시행함.
- 산림을 소유한 개인, 기업, 단체와 都 농림수산진흥재단이 산림 경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 삼림 소유주는 임지(林地)를 제공하고 기업은 식재 후 10년간 임업 정비비를 부담하되 숲에 회사이름을 붙일 수 있음. 都是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16개 기업 및 단체와 협정을 맺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7/20178500.htm)

전기자동차를 2013년까지 5000대 보급 (일본 교토府)

- 일본 교토府는 저탄소사회 실현과 脫원자력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임. 이를 통해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계획임.
- 교토府는 2013년까지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5000대 보급하고, 2020년에는 신차 판매량의 1/2을 전기자동차로 할 계획임.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저탄소사회 모델을 만들고 광역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민·관 협력을 추진함.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시승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용차와 렌터카, 택시에도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도록 함.

(www.pref.kyoto.jp/denkizidousya/resources/1268362568139.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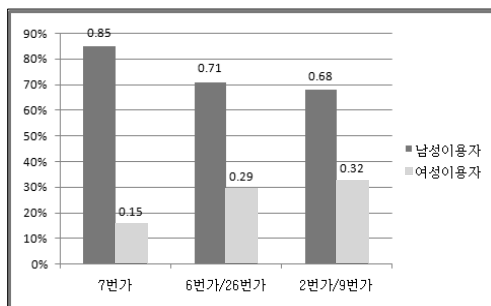
도 시 교 통

5. 여성 자전거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추진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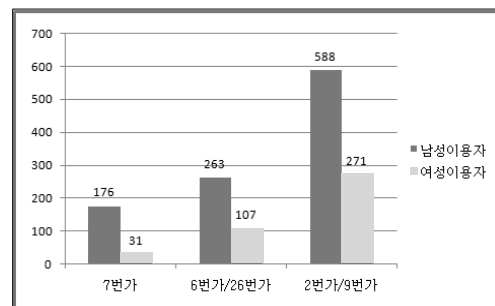
-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성의 증가비율이 20~25%에 그치고 있음. 이에 뉴욕市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 市 교통국은 자전거·차량 혼합구간인 7번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6번가와 26번가, 자전거 전용도로인 2번가와 9번가를 대상으로 각 구간에서의 남성 및 여성 이용자 비율을 최근 조사함. 조사 결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성 비율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곳보다 높게 나타남.
 - 남녀 비율은 7번가에서 85:15, 6번가와 26번가에서 71:29, 2번가와 9번가에서 68:32의 비율로 나타나 자전거·차량 혼합구간에 비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여성 비율이 높음.
 - 자전거 전용도로인 2번가와 9번가는 2000~2007년까지는 자전거·차량 혼합구간이었으나 2008년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뀜. 2007년까지의 남녀 비율은 3.74:1이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면서 2.17:1로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증가함.
- 이에 市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도로환경별 남녀 자전거 이용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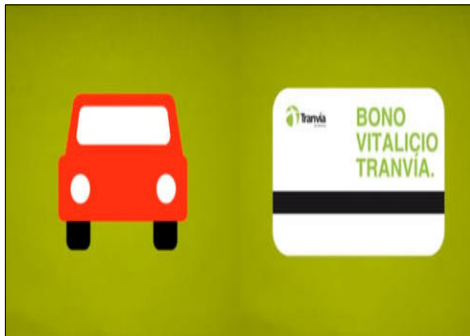


【도로환경별 남녀 자전거 이용자 수】

(www.streetsblog.org/2011/07/13/to-close-the-gender-gap-separate-cyclists-from-cars/)

6.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평생 버스이용권 무료 제공 (스페인 무르시아市)

- 스페인 동남부에 위치한 무르시아(Murcia)市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캠페인을 최근 선보임. 무르시아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평생 버스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임.
- 市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그런데 파격적인 조건이 없으면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평생 버스이용권 홍보 자료】



【승용차 이용 줄이기 캠페인 광고】

(<http://shareable.net/blog/spaniards-trade-cars-for-lifetime-trolley-pass>)

7.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인정제도 운영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반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택시’(UD 택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UD 택시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함.

- 국토교통성은 인정기준을 만족시킨 차량에는 ‘UD레벨 1’, 인정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만족시킨 차량에는 ‘UD레벨 2’를 부여하는 다단계 평가 제도를 도입함.
- UD 택시 이용자가 UD 택시를 쉽게 구분하고 그 차량이 어느 수준의 레벨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해당 레벨을 표시하는 마크를 부착할 예정임. 마크 디자인은 2011년 8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임.



【UD 택시 이미지와 레벨 부착방식】

(www.mlit.go.jp/report/press/jidosha01_hh_000023.html)

(www.mlit.go.jp/common/000150004.pdf)

도시계획 · 주택

8. 지속가능한 공원계획안 발표 (뉴욕)

○ 뉴욕시는 2011년 7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계획안을 발표함. 이번 계획안은 시 공원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부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목표와 실천계획안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침과 공원 디자인,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자연환경 보호정책이 포함됨. 그 중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공공이 주관하는 재활용방안, 디자인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시는 계획안 수립을 위해 2010년 2월 교육, 자본, 재활용, 나뭇잎의 비료화 처리, 지표, 커뮤니케이션의 6개 부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지속가능한 공원계획 TFT를 구성함. TFT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도시공원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② 장기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정부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③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④ 2013년까지 공공 재활용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리며, ⑤ 공원에서 특별행사가 있을 때 재활용도를 높이고, ⑥ 낙엽을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각 자치구에 제공하며, ⑦ 소량의 낙엽이나 목재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⑧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디자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⑨ 공원 디자인과 관련된 콘텐츠를 디지털 라이브러리화해 지속적으로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⑩ 공원을 디자인하는 설계자와 관리자 간의 소통을 통해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함.



【낙엽의 퇴비화를 위한 준비작업】

(www.nycgovparks.org/sub_newsroom/press_releases/press_releases.php?id=20997)

(www.nycgovparks.org/sub_about/sustainable_parks/)